

2005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 대상 수상

“간판, 광고예술로 승화”

광고랜드를 방문하기로 한 지난 11월 28일. 충남 서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달린 지 2시간여. 기차는 서산터미널에 도착해 다시 택시를 타고 전화로만 전해들은 석림동 의료원사거리로 향했다. 3분만에 다다른 그곳. 당초 약속 시간이었던 오후 2시보다 무려 5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문제는 거기서 광고랜드를 찾는 일. 사거리 한 어귀에 있는 1층 건물에 ‘2005대한민국옥외광고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병용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악수를 건넨 그는 “많이 놀라셨죠. 사무실에 너무 작아서...”라며 수줍게 웃었다. 대략 10여평 정도 크기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왼편에는 실사 출력기 1대가 설새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이제 갓 제작한 듯 번들번들한 광택이 나는 광고물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대상의 영광을 안겨다준 ‘서예家’다.

범한 생활을 하던 조 대표는 당시 간판 제작업을 하던 손위 처남을 통해 옥외광고 세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다. 그에게는 간판이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라 하나의 조형예술로서 다가왔던 것. 자신이 만든 작품이 거리에 전시되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 과정과 묘미는 그를 옥외광고업계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많은 고민 끝에 조 대표는 처남(김환청 디자인실장)과 광고랜드를 설립하게 된다. ‘광고랜드’는 조 대표가 3개월여의 고심 끝에 직접 지은 상호다. ‘랜드’라는 어휘가 갖고 있는 대지의 넓은 이미지를 앞세워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미라고 한다. 여담으로 ‘광고’자를 붙인 것은 업종 전화번호 색인에서 가나다 순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앞 부분에 위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이 회사는 조병용 대표, 김환청 디자인실장, 그리고 외부 현장업무 사원 1명, 이렇게 3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 책임은 김 실장이, 조 대표는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현장 업무도 처리한다. 적은 인력이

평범한 공무원에서 옥외광고인으로의 변신

광고랜드는 지난 1994년 창립됐다. 주로 옥외 현수막 및 간판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화훼 분야를 전공한 조 대표는 옥외광고계에 뛰어들기 전 농업기반공사(구 농지계량조합)에 다니던 안정적인 샐러리 맨이었다. 직장인으로서의 평



간판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무이한 홍보 수단. 그러나 무조건 큰 것이 효과가 좋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도시 미관은 뒤로 밀려난 채 대형화만을 추구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간판제작 전문업체인 광고랜드(대표 조병용)는 이런 무분별한 대형화 추세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효율적인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광고물 제작을 추구하는 업체다. 예술성과 친환경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업체는 2005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에서 '서예家' 라는 작품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05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 대상작 '서예家'

지만 서산시 옥외광고지회 회원들끼리 서로 도움을 아낌없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다지 큰 지장은 없는 편이다. 고층건물의 광고물 설치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시에는 서산지회 회원들이 인력을 지원해가면서 일을 해결하는 공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력장비는 태일시스템에서 제작한 수성출력 장비인 FJ740. 2년전에 도입한 것으로 장비의 활용도 및 출력품질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한다.

광고 경력 12년만에 이룬 쾌거

지난해 11월1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5년 제 13회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서 광고랜드는 서예학원 이미지를 나타낸 창작광고물 '서예家'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전은 서울 및 각

시·도 등에서 총 118점(기설치 부문:10점, 창작모형부문:61점, 설계디자인부문:47점)의 옥외광고물이 출품됐다. 이번 옥외광고 대상전은 출품 수 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적었지만 작품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예家'는 벼루모양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전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프레임 표면에 문양을 부착,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내부 앞판은 스테인레스 판 위에 엠보 필름으로 음각효과를 부각시켰으며, 전체 배경에는 훈민정음을 새겨 넣어 고전적인 이미지와 품위를 강조했다.

서예학원을 소재로 택한 것은 올해로 80주년을 맞고 있지만 지난 1990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등 침체되다가는 한글날과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와 정신을 기리자는 뜻에서였다. 간판에 사용

된 글씨체는 컴퓨터 글씨체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글씨들을 만들어 표현해 낸 것이다. 기존 컴퓨터 서체를 사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광고물 부착시 타 광고물과의 차별화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이었다. 광고랜드는 가급적 업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별도의 서체를 직접 제작한다. 물론 손이 더 많이 가고 번거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서체로 인한 광고물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반면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물들은 기존의 것들보다 고급화할 수 있고 광고효과도 커서 오히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1년여간의 아이디어 구상 및 기획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서예家'의 본격적인 제작은 지난해 9월에 시작됐다. 옥외광고 대상전의 작품 마감일은 지난해 10월24일. 그러나 서산지역에서는 이 시기



▲ 광고랜드가 취득한 각종 공인자격증 및 위촉장들
 ▲ 광고랜드 주력장비인 태일시스템의 'FJ740'

에 맞추어 해마다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이 열린다. 철새기행전은 서산시에서 후원하는 연례 행사로 광고랜드는 이 행

사 관련 광고물 제작을 맡아 오던 상황. "행사 준비와 함께 출품작 제작을 병행해야 했기에 시간을 배분하고 업무 효율

을 극대화시키는 과정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조 대표는 털어놨다. 바로 이 때문에 대상상을 받긴 했지만 전체 프레임과 도



인터뷰 | 조병용 대표

“질적향상위해 등록제 정착시급”

맞물려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준 김환청 디자인 실장과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서산지부회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이번 옥외광고대상전에서 대상 수상작인 '서예家'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서예가는 고급스러운 벼루모양의 형상으로 서예학원의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1년여 동안의 작품 구상과 준비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제작은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하게 됐습니

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지역 행사 광고물 준비 기간과 맞물리는 바람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막상 지점에 와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작 초기 단계부터 글씨뿐만 아니라 전체 프레임과 도장 부분에도 조명을 넣어야겠다고 구상은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간판 제작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광고주들은 흔히 대형 간판만이 효과가 있다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지역에서 주최하는 지역대회에서는 몇 번 입상한 적이 있었지만 전국단위 규모로는 처음 받은 큰 상이라 감회가 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행사 광고물 제작 기간과

장에 조명을 넣어야겠다고 계획했으면 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아쉬움이다.

치열한 단가경쟁의 해법은 '고급화'

현재 서산시에서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약 5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산시부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30여 업체 정도다. 비회원사가 많다보니 서산시도 업체간의 단가 출혈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군별로 회원들간의 협정요금 시도가 여러번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정회원 업체간에 최저가격선을 정해도 비회원 업체의 저가 공세

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식 이하의 저가로 시공된 광고물은 당연히 불량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제품 불량에 대한 비난은 전체 광고업자들이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 조 대표의 지적이다. 이 같은 '제 살 깎아먹기식'의 가격출혈 경쟁속에서 광고랜드가 나름대로 찾아낸 해법은 두 가지. 바로 '광고주 성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광고물의 고급화 추구'다.

광고주의 성향과 업종에 대한 특성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광고주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홍보효과를 보장해주고 고품격의 광고물들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는 자연스럽게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 다소 고단가로 책정하더라도 충분

히 광고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옥외광고대상전 수상은 광고랜드의 고급화 이미지 전략에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조 대표는 기대하고 있다.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제 값을 하는 회사'로 인정받는 것이 조 대표의 목표다.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광고주들에게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광고물을 만들어 준다는 것 또한 변함없는 철칙이다. 이를 위해 당장의 이익 때문에 업종의 특성과 성향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형간판의 제작은 광고랜드가 지양하는 부분이다.

〈김치원 기자〉

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면 작고도 가시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훌륭한 간판 제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작 상담을 할 때에도 광고주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어디를 가든지 내가 쓸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려 노력합니다. 직원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언급하셨지만 국내 간판문화가 점점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화는 가격과 크기에만 치중하는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가에 무조건 큰 간판을 선호하는 것이죠. 실제 광고주에게 견적을 넣었을 때 경쟁 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면 질적 측면은 무시된 채, 바로 수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가로 시공을 맡은 작업들은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

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의 경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의 유형이 있는데 낮은 단가로 견적을 내면 당연히 시공지는 질이 낮은 C형 프레임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등록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도시 미관과 질적인 측면은 뒤로 밀려난 채 우후죽순처럼 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들간의 가격경쟁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등록제가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자만이 업을 영위함으로써 인력의 고급화와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제는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은.

광고업계에 몸담은지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스스로 더 배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옥외광고 종사자로서의 자부심만은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초심의 자세를 가다듬고, 자만하지 않으며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광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향후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카탈로그로만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동안의 광고물들을 직접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간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아니라 공간 미학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김치원 기자〉